

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질문 전략을 통한 공손성 실현 양상 분석

엄진숙

Abstract

Eom Jin-suk. 2015. 6. 30. **A Study on Politeness by Using a Question Strategy of Learners of Korean.** *Bilingual Research* 59, 111-139.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how to substantialize politeness through question strategy to redress FTAs(Face Threatening Acts) of a negative face. Learners of Korean as L2(Second Language) speakers in Korea acquire knowledge about interrelation between a linguistic form and a pragmatic function; that is to say they use interrogative sentences for various pragmatic purposes that depart from original function: information request. Because speakers desire to communicate successfully by realizing politeness and redressing possibility of FTAs.

This paper shows three conclusions by analysing the learner's languages of conversations, text messages, texts of internet bulletin board and logical rhetorical writings, etc. First, KSL(Korean as a Second Language) learners use interrogative sentences strategically for a communicative intention. They are divided into conventionalized expressions like greeting words and not-conventionalized questions including indirect speech acts. KSL learners produce not-conventionalized questions(67%) more than conventionalized expressions(33%) of all. Second, KSL learners use interrogative sentences the most for expressing opinion(32%) and requesting(27%). This is explained in terms of reaching a systemical variation stage of interlanguage of KSL learners. Third, KSL learners use judgement questions the most and they tend to connect a specific question type with a specific pragmatic function. Judgement questions were used the most in request and confirmation, negative questions were used the most in expressing opinion, wh-questions were used in various functions like ordering(suggestion) and changing a topic, etc. Especially rhetorical questions were connected with expressing opinion.(Yeungnam University)

【Key words】 KSL(제 2언어로서의 한국어), question strategy(질문 전략), politeness(공손성), FTAs(체면 위협 행위), pragmatic function(화용적 기능)

1. 머리말

L2(Second Language) 학습자는 모국어 화자들과의 관습적인 담화를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가운데 목표 사회의 사회문화적 정보들을 습득하게 된다. 담화의 형태적, 기능적 특성들은 음운적, 형태 통사적 구조, 어휘, 화행 유형, 대화 순서, 장르, 끼어들기, 휴지, 대화 차례 등 사회문화적 정보들을 담고 있으며 이는 성공적인 상호작용을 위해 중요한 요소들이다. 언어는 일차적인 정보 전달의 기능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의 사교적 측면에서 공손성 기능이 중요하다(Lakoff, 1975:296). 일반적으로 대화 참여자들은 상호간에 배려와 존중을 통해 성공적인 상호작용을 추구한다. 대인적 상호관계에서 대화 참여자들은 서로의 체면을 의식하여 배려하는 공손성을 언어적 형식을 통해 표출하게 된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언어적 형식도 원래부터 공손성의 의미 자질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Watts, 2003:168). 즉 언어적 형식은 일대일로 대응되는 단독 기능만을 가지지 않고 의사소통 가운데 본래의 기능에서 벗어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 같은 양상은 모국어 화자의 언어 사용에서뿐만 아니라 KSL(Korean as a Second Language) 학습자의 언어 사용에서도 실제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 (1) KB10: 24시간 안에 안 쓰면, 하루 안에 안 쓰면 그, 인정을 안해 줘.
 FB10: 힘들겠네요?
 KA11: 음 짜증나 죽겠어 하기 싫은데 이번에만 하고, 11월까지
 만 하고 안 할려고

FB11:

[아 진짜요?1)

(1)의 자유 대화를 보면 KSL 학습자(FB)가 의문문 형식으로 상대방에게 맞장구를 치면서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 같은 언어 사용을 통해 KSL 학습자들이 의문문 형식을 단순히 정보를 요구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화용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는 언어 보편적 현상이며²⁾ 한국인 모국어 화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³⁾ 본고에서는 KSL 고급 학습자들이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전략으로서 의문문 형식을 통해 상대방에게 공손성을 실현하는 화용적 기능을 실현하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2. 연구 배경 및 연구 문제

본 장에서는 한국어 의문문의 언어적 특성과 공손성과 관련된 이론 및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 문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 1) KA, FB에서 첫 번째 알파벳 K는 한국인 모국어 화자, F는 KSL 학습자를 의미한다. 두 번째 알파벳 A, B는 고유 기호인데 구어 자료의 대화자 표기를 KA, FB, KC, FD, KE, FF로 하였다. FB, FD, FF는 각각 F01, F02, F03과 동일한 학습자이다. 본고에서는 총 42명의 연구 대상을 K01부터 K42까지 고유 기호를 붙여 자료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FB11’에서 숫자는 대화 차례 순서이다. 그리고 화자의 어조가 상황조가 분명하다고 판단될 때 물음표 기호를 표시하였다.
 - 2) 체면 보상 전략은 보편적인 사회적 원리에 해당되며 영어를 비롯한 여러 언어에서 사용되는 관용구화(idiomatic) 또는 관습적 표현(conventionalized)의 의문문 구조는 의사소통에서 화자의 소망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드러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 3)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모국어 화자와의 언어 사용과 대조 비교에 초점을 두지는 않았음을 밝힌다. 다만, 본 연구를 위한 사전 조사에서 한국인 모국어 화자들의 대화(48분가량)를 실제 녹음하여 전사하고 분석한 결과 유사한 사용 양상을 분명히 살펴볼 수 있었다.

2.1. 의문문

의문문은 문법적으로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을 통해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의 한 유형으로 의문형 종결어미에 의해 성립된다.

(2) 가. 맛있는 음식 만들 수 있니?(F38)

나. FB04: 그런데 이거하고 이거 어떤 차이가 있어요?

KB04: [이게

다. 심심하지 않아요?(F33)

라. 동물 실험하는 것은 사람 욕심이 아닙니까?(F05)

일반적으로 의문문은 ‘예/아니오’의 대답을 요구하는 판정의문문과 구체적인 정보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사의문문⁴⁾으로 나눌 수 있다. 형태는 의문문이나 의미상 질문 기능이 아닌 수사의문문의 유형도 있으며 의문문은 상황에 따라 명령, 금지, 권고 등의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다(남기심 외, 1985:349). 이와 같이 언어적 형식과 화자의 의도 즉 발화 기능이 다른 경우 의문문은 간접언어행위로서 기능한다. 간접언어행위를 구성하는 한국어의 의문문은 그 기능에 따라 서술형 의문문, 요청형 의문문, 명령형 의문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박종갑, 1982:2~3). 또한 (3)의 예문과 같은 부정의문문 형태도 있다. 실제로 KSL 고급 학습자 언어에서는 다음과 같은 양상을 찾아볼 수 있었다.

(3) 가. 결혼하려고 연애하는 거 아니야?(F28)

나. 우리는 교실 있는데 진짜 너무 피곤하고 내일 퀴즈가 있어서
오늘 수업을 취소하면 안 돼요?(F31)

다. 안 나가서 놀아요?(F39)

4) 이는 설명의문문과 동일한 의미의 용어이다.

서술형 의문문은 수사의문문의 반어적 용법에 해당되는데 상대방의 의견과 화자 자신의 의견이 다른 경우, 상대방의 의견을 부정하기 위한 경우,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고 생각되는 어떤 사실을 알려 주고자 할 경우에 사용된다(3가). 요청형 의문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어떠한 행동을 요청하는 경우에 사용되는데(3나) 이때 화자는 행동의 수행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청자에게 넘겨주는 특성이 있으며, 부사어 ‘좀’과 보조용언 ‘주다’가 포함되는 경우 화자의 공손한 태도가 더욱 분명히 드러날 수 있다. 그리고 명령형 의문문은 어떤 행동을 수행하지 않는 이유 또는 수행하는 이유에 대해 물음으로써 그 행위를 하라 또는 하지 말라는 부드러운 명령 혹은 권유의 의미를 담고 있다(3다). 이처럼 의문문은 청자의 체면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화자의 궁극적인 의사소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간접적인 언어적 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KSL 고급 학습자들이 의문문 형식을 본래의 정보 요구의 기능 수행에서 벗어나 상대의 체면을 고려하여 공손성을 실현하면서 다양한 의사소통 목적을 달성하는 간접언어행위로서 사용하는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KSL 고급 학습자의 공손성 실현 양상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2.2. 공손성(Politeness)⁵⁾

‘공손성’은 ‘대인적 상호관계의 마찰을 감소시키기 위해 발달된 것’(Lakoff, 1975:64), ‘전략적인 갈등 방지’(Leech, 1980:19), ‘인간 상호작용의 제약 중 하나로 사람들이 다른 이들의 감정을 배려하고 상호간의 편안함을 확립해 주고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Hill et al, 1986:349), ‘원만한 의사소통과 관련된 언어 사용’(Ide, 1989:225) 등으로 정의되었다. Brown & Levinson(1987, 이하 B&L)은 ‘공손성’이라는

5) ‘공손’ 또는 ‘공손성’으로 번역되며 본고에서는 ‘공손성’으로 통일한다.

특별한 동기(motivation)가 상호간의 체면(face)을 지켜 주기 위한 욕구라 설명하며 체면 개념을 중심으로 대화자 간에 공손성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 중심의 공손 이론을 제시했다. 체면 개념은 보편적이며 다양한 종류의 문화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체면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자신의 공적인 이미지’로 이는 상호작용의 특성을 설명하는 것이며, 사회의 보통 수준의 일반 성인 구성원이라면 모두 체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공손성을 ‘화자가 다른 사람의 체면을 의식하여 배려하는 모든 언어적 행위’로 정의한다.⁶⁾ 체면이란 공적인 자기 이미지이며 모든 구성원들이 스스로 가지기 원하는 것으로 소극적 체면과 적극적 체면으로 나눌 수 있다. 적극적 체면은 긍정적인 영구적 자기 이미지 또는 상대방부터 요구되는 ‘성격(성품)’으로 인정받고 승인받으려는 소망을 포함한다. 소극적 체면은 영도에 대한 기본 권리, 개인적인 보존, 방해받지 않을 권리 등의 행위의 자유와 부담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체면은 의사소통에서 지속적으로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협조적인 대화에서 체면 손상은 기피되어야 한다. 그런데 대화자들은 의사소통 중에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체면을 위협할 가능성을 잠재적으로 수반하게 된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잠재적인 체면 위협 행위(Face Threatening Acts, 이하 FTA)⁷⁾라고 할 수 있다. FTA는 체면을 본질적으로 위협하는 여러 종류의 행위들로 수신인(청자) 또는 화자의 체면 욕구에 상반되는 자연스런 행위이다. B&L은 이 같은 FTA를 감소시키고 회피하고자 하는 공손 전략(Politeness Strategy)을 자세히 분류해 제시하였다. 공손 전략은 ‘체면 위협 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자의 화용론적 의도’이다. 본고에서는 화자

-
- 6) 화자는 자신보다 연소자, 지위가 낮은 사람, 친밀도가 높은 경우에도 공손성을 실현시킬 수 있다.
- 7) 체면 위협 행위의 부담 정도는 대화자 간의 사회적 거리와 청자가 화자에 대해 갖는 권력(힘)과 특정 문화에서 발생하는 어떤 행위의 절대적 부담인 강요의 정도가 함께 작용하여 결정된다.(weight=social distance+relative power+rate of imposition or absolute ranking)

가 청자의 소극적 체면을 보상하고자 간접언어행위를 통해 상대에 대해 공손성을 실현하는 ‘수사의문문 사용’(Use rhetorical questions)과 ‘질문’(Question, Hedge⁸⁾) 전략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질문 전략은 일반적으로 간접발화를 말하며 청자의 욕구 또는 청자와 관련된 것에 대해 추정 또는 가정하지 않으며 방해받지 않으려는 청자의 소극적 체면을 존중하려는 소극적 공손 전략의 하나이다. 수사의문문 사용 전략은 대화의 질의 격률을 어기는 것으로 암시적 표현 공손 전략의 한 종류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KSL 고급 학습자가 청자의 소극적 체면에 대한 FTA 가능성을 보상하고자 간접적인 질문 형식으로 의사소통하는 양상을 중심으로 공손성 실현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2.3. 공손성과 질문 전략

지금까지 한국어 의문문의 언어적 특성 및 공손성과 관련된 이론을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KSL 고급 학습자가 청자의 소극적 체면에 대한 FTA 위험을 감소하고자 의문문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양상을 통해 공손성 실현 양상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L2 화자로서 외국인이 한국어의 언어적 형식과 화용적 기능 간의 적절한 연결을 습득하여 사용하는 것 즉 정보 요구의 본래 기능에서 벗어나 화용적 기능으로서 의문문 형태를 사용해 자신의 의도를 부드럽게 표현함으로써 상대에 대한 공손성을 실현하는 양상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본고의 연구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8) hedge(양다리 표현)란 문장 안의 서술어나 명사구 부류를 수식하는 불변화사(부사 또는 전치사), 단어 또는 구를 말한다(B&L, 1987:145).('Hedge' is a particle, word, or phrase that modifies the degree of membership of a predicate or noun phrase in a set.)

1. KSL 고급 학습자가 공손 전략으로서 의문문을 사용하는 양상이 어떠한가?
2. KSL 고급 학습자가 공손 전략으로서 사용하는 의문문의 화용적 기능 양상이 어떠한가?
3. KSL 고급 학습자가 공손 전략으로서 사용하는 의문문의 종류별 양상이 어떠한가?

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FTA를 보상하는 질문 전략은 일련의 연속된 행위나 발화 가운데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단편적인 언어 자료로 가능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SL 학습자가 상황 맥락에 맞게 공손성을 실현하는 전략으로 의문문을 선택해 사용하는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몽골, 미국, 터키로 9개국 42명의 학문 목적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들은 한국어 집중 과정의 공식적 학습을 통해 최소한 한국어 과정 4급까지(800시간) 이수한 학습자들로 한국어 L2 환경에서 18개월 이상 거주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학문 목적의 고급 학습자들이다.⁹⁾ Bardovi(1999)는

9) 중국(28명, 4급 이수 후 학부 진학), 사우디아라비아(3명 5급 이수 후 대학원 진학, 나머지 3명 4급 이수 후 학부 진학), 일본(2명, 4급 이수 후 대학원 진학), 말레이시아(1명, 6급 이수 후 대학원 진학), 우즈베키스탄(1명, 대학원 재학 중 5급 이수), 베트남(1명, 대학원 재학 중 4급 이수), 몽골(1명, 5급 이수 후 학부 진학), 미국(1명, 4급 이수 후 대학원 진학), 터키(1명, 5급 이수 후 학부 진학)(학부에 진학한 모든 학습자들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 3급 합격 또는 대학교 자체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였음)

본고에서는 KSL 학습자의 숙달도에 따른 비교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숙달도별 질문 전략 사용 양상은 엄진숙(2014)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각주17 설명 참고)

중국인 학습자의 수가 28명으로 전체 학습자 수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모국어 화용적 정보가 한국어 사용에 미치는 전이와 관련하여 전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L2 학습자의 중간언어 화용론 발달에서 문법적 지식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며, 학습자가 다양한 언어적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언어 형태를 화용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언어 능력이 일정한 수준에 달한 고급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L2 환경에 자연스럽게 노출된 상태의 언어 사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고급 학습자일수록 목표 문화의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 가운데 사회문화적 정보들을 자연스럽게 습득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어 학습 기간과 거주 기간은 언어 사회화와 관련이 높다. 아동들이 사회와 맥락 안에서 문화적으로 적절하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회화되는데 이는 흡사 L2 사용자들의 양상과 유사하다(Ochs, 1986:2). 이러한 맥락에서 KSL 고급 학습자들이 의문문 형식과 공손성 기능의 연결을 실제 언어 사용에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내는지에 초점을 두고 2013년 12월부터 2014년 8월 사이에 자유 대화를 비롯하여 논설문, 쌍방향 문자 메시지, 편지글, 게시판 문의글 등 총 192개 담화를 수집하였다.¹⁰⁾

일본인 모국어 화자, 일본인 영어 학습자, 미국인 모국어 화자의 세 집단을 대상으로 거절 담화 완성 과제를 통해 화용적 전이(pragmatic transfer)에 대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거절을 위한 표현의 의미 범주가 유사한 분석 결과가 나타났다. 즉 세 집단 모두 긍정적인 의견을 내세우며 거절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사과를 통해 거절하는 경우가 공통적인 범주 양상이 나타났다(Beebe, Takahashi & Uliss-Weltz, 1990). 또한 학습자들의 다양한 모국어 배경에도 불구하고 L2 학습자들이 문법 형태소를 유사한 순서로 습득하는 경향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한 연구가 있다. 다양한 모국어 배경을 가진 영어 학습자들이 모국어나 다른 개인적인 요인들의 영향으로 인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의문문에 주어-조동사 도치 형태가 있는 모국어의 학습자들조차도 영어 의문문을 생성할 때 서술문 순서를 사용하는 것과 전치시키는 시기를 공통적으로 거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Pianemann, Johnston & Brindley, 1988).

- 10) 구어 자유 대화, 쌍방향 문자 메시지, 편지글 담화의 경우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면서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목적의 논설문과 상대에게 정보를 문의하기 위해 작성한 게시판 문의글과 달리 특정 화용적 목적을 가지고 생성된 담화가 아니다. 또한 본고에서 수집한 담화는 화자와 청자(독자)의 관계가 상하의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학교 선배, 가게 점원, 가족(누나, 형, 언니, 오빠, 동생), 한국어 선생님 등으로 비교적 수평적인 관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담화들은 실제 KSL 고급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담화 유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담화 특징적이 아닌 보편적인 한국어 사용 양상을 분석할 수 있다. 자유 대화는 총 3개를 녹음 전사하였으며 KSL 고급 학습자와 한국인 모국어 화자와의 대화로 총 15분가량이다. 문어 담화의 경우 모든 학습자 언어는 각 문장별로 입력하여 분석하였으며, 담화 안에서 앞뒤 맥락상 정보 요구의 기능이 아닌 여러 화용적 기능을 실현하는 의문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¹¹⁾

4. 분석 결과 및 논의

이 장에서는 공손 전략으로서 의문문을 사용하는 전체적인 양상을 살펴본 후 보다 구체적으로 화용적 기능별, 의문문 종류별로 살펴보려고 한다.

4.1. 공손 전략으로서의 의문문 실현 양상

다음은 한국어 학습자가 의문문 형식의 인사말을 사용한 예이다. 상대에게 어떠한 사실의 판정이나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의문문 형식의 관습적인 인사말 표현으로 대화자 간의 성공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자연스러운 양상이라 볼 수 있다.

(4) 가. (메시지 시작) 안녕하세요? 오늘 학교에서 못 봤어요. 잘지내세요?(F34)

나. (메시지 시작) 선생님, 잘 지내시죠? 고맙습니다. 시간이 되시

11) 다음과 같이 화자가 청자에게 어떠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를 요구하는 의문문은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음을 밝힌다. (1급 선생님이 누구세요?(F32), 성적표가 나왔어요?(F40), 요즘 뭐 해요?(F41) 등)

면 와 주세요.(F33)

다. (메시지 시작) 쌤 안녕하세요?^^ 쌤 잘 지내세요? 저는 4월에 한국에 있을 거예요. 그때 쌤을 만날 수 있어요. 저는 쌤에게 물어볼 것이 있어요.(F35)

위의 (4)의 문장에서 KSL 학습자가 사용한 정형적인 인사말 표현들은 화자가 청자의 소극적 체면을 고려하여 용건을 드러내기 전에 친근감을 표해 심리적인 거리감을 확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만일 한국어 학습자가 ‘안녕하세요’와 ‘잘 지내세요’를 발화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메시지를 시작했다면 일반적으로 전체 담화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화제를 시작한 예라 할 수 있다. 화자는 이처럼 발화 의도를 드러내기 전에 먼저 예비적 성격을 띠는 인사말을 한다.¹²⁾ 인사 없이 먼저 본격적으로 화제를 도입할 경우 상황에 따라 ‘비공손’일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관습적인 인사말인 정형적인 표현의 의문문을 사용하여 상대의 소극적 체면 손상을 보상하기도 하지만 KSL 고급 학습자들은 다음 (5)와 같이 상황에 맞게 적절히 생성한 의문문을 통해 화용적 기능을 달성하는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5) 가. 조금 전에 언니한테 전화해요. 언니 tell me the ticket can't be refunded 30만 원 비행기 값 안 받았어요. 어떻게 선생님? 도와주세요.(F41)

나. (smile 이모티콘) 혹시 현대 사회 특징에 대해 좀 쉽게 설명한 책 아세요? 이 주제로 자료 찾으려고 하는데요.(F21)

(5)의 경우 화자의 의사소통 목적은 부탁 또는 요청이라 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사용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12) 이 같은 예비발화 기능과 관련해서는 다음 장에서 논의할 것이다.

<도표 1> 공손 전략으로서의 의문문 실현 양상



위의 <도표 1>을 보면 의문문 형식의 관습적인 사용을 나타내는 정형적 표현은 33%, 정형적 표현 이외의 의문문은 67%로 나타났다. 관습적인 표현을 사용한 의문문은 위의 (4)와 같이 단 두 가지 유형만이 나타났으며 나머지 67%는 비관습적인 사용이었다. 즉 KSL 고급 학습자는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 체면을 고려하는 언어적 표지로서 정형적인 인사말 표현과 더불어 상황 맥락에 맞게 적절한 용언과 의문문 종류를 선택하여 여러 화용적 기능을 실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화용적 기능과 관련하여 다음 절에서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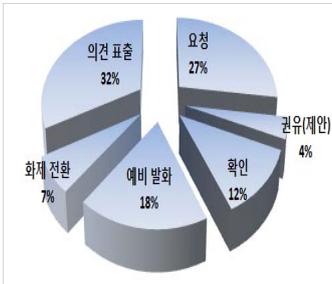
4.2. 질문 전략의 화용적 기능별 실현 양상

KSL 고급 학습자들이 청자의 소극적 체면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을 보상하면서 자신이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의사소통 목적을 의문문 형식을 통해 실현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고에서 KSL 고급 학습자들의 192개의 담화에서 실제 사용된 74회의 질문 공손 전략들을 맥락 안에서의 화용적 기능을 고려하여 여섯 종류로 범주화하였다.¹³⁾

13) 본 연구자는 KSL 고급 학습자들의 담화 자료에 나타난 의문문 문장들이 맥락적으로 어떤 화용적 기능을 수행하는지 질적으로 분석하여 기능별로 범주화하였으며 이를 다시 양적으로 분석하여 그 경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고에서 수집되지 않은 다른 종류의 다양한 담화들을 분석한다면 또 다른 화용적 기능이 출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래의 <도표 2>는 KSL 고급 학습자가 정보 요구의 일차적인 기능의 의문문이 아닌 다양한 화용적 기능을 실현시키기 위해 의문문을 사용한 양상을 분석한 것이다. KSL 고급 학습자는 의문문 형식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부드럽게 표출하는 양상이 3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상대에게 어떠한 행위를 요청할 때가 27%로 나타났다. 화자가 자신의 궁극적인 발화 목적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기 전에 예비 발화로써 의문문을 사용한 것은 18%로 나타났으며 상대의 발화를 확인하는 맞장구 성격을 띠는 의문문은 12%로 나타났다. 또 갑작스런 화제 전환을 피하고자 의문문 형식을 빌려 최대한 자연스럽게 화제를 전환한 것은 7%로 나타났으며 권유(제안)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의문문은 4%로 나타났다.

<도표 2> 질문 전략의 화용적 기능별 실현 양상



구분(14)	백분율(출현 횟수)
요청	27(20)
권유(제안)	4(3)
확인	12(9)
예비 발화	18(13)
화제 전환	7(5)
의견 표출	32(24)
합계	100%(74회)

이 같은 결과는 KSL 고급 학습자가 상호작용에서 상대의 소극적 체면을 보상하려는 다양한 화용적 의도로 의문문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 14) 본고에서는 요청과 권유(제안) 기능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요청(request) 발화는 행위 주체가 정해져 있지 않고, 화자가 상대에게 어떤 것을 부탁하는 것이라면 권유(advice, suggestion)(제안)는 행위 주체가 상대방(청자)으로 한정되어, 화자가 청자에게 아이디어 제시 또는 조언 차원에서 발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을 말해 준다.

KSL 고급 학습자는 의문문 형식을 특히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때 가장 많이 사용했는데 이는 상대와 의견이 다를 때 혹은 다를 수도 있을 가능성을 미리 짐작하여 행하는 보상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요청 기능의 경우 상대가 화자의 요청을 수락해 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결정권을 상대에게 넘겨줌으로써 상대 체면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표 2>의 결과는 엄진숙(2014: 92)에서 조사한 KSL 고급 학습자의 사용빈도 순위와 동일하다. 반대 의견, 의심, 비동의 등을 포함하는 의견 표출이 47.6%, 요청 37.1%, 확인(맞장구)이 8.6%, 부드러운 명령(권유)이 6.7%로 빈도 순위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KSL 고급 학습자와 한국인 모국어 화자의 빈도 순위는 다르게 나타났다. 서상규 외(2013)의 한국인 모국어 화자의 구어 말뭉치의 유형별 예시 자료 가운데 공적 대화와 사적 대화 10개와 연구자가 수집한 한국인 대학생의 편지글 10편¹⁵⁾을 분석하여 공손 전략 사용을 분석한 결과 확인 46.1%, 예비 발화 38.9%, 의견 표출 10%, 요청 5%의 순으로 나타났다. 편지글의 경우 표현 수단이 글이지만 구어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상대방을 상정하고 이루어지는 담화이다. 즉 화자의 발화는 청자의 영향을 받으므로 상호교환적 담화로 간주할 수 있는데(Guy Cook 2003(김지홍 2003:98)) 이 같은 담화 유형의 특징이 반영된 결과라고 짐작할 수 있으며 또한 담화 자료의 양적인 측면에서 한국인 모국어 화자의 담화를 더 많이 수집하여 질문 전략의 기능별 빈도 순위를 세밀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KSL 고급 학습자는 질문 공손 전략을 의견 표출과 요청의 화용적 기능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15) 이 자료는 학부에 재학 중인 1학년 한국인 대학생의 편지글이며 2015년 6월에 본 연구를 위해 추가적으로 수집된 자료이다.

- (6) 가. 동물 시험 말고 다른 약을 안전하게 만든 방법을 없을까요?
꼭 동물 시험을 해야 돼요?(F26) - **의견 표출**
나. 혹시 예약을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라 시험을 미리 칠 수 있을까요?(F40) - **요청**
다. (메시지 시작) 선생님, 학교 오셨어요? 성적표가 나왔어요?
(F39) - **예비 발화**

(6가)는 화자가 자신의 의견을 표출함에 있어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해 수사의문문 형식을 사용한 예이고 (6나)는 시험을 미리 치게 해 달라는 요청을 질문을 통해 간접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요청 기능의 경우를 보면 요청 전에 상대를 먼저 부른다거나(호칭) ‘설마, 너무, 혹시’ 등의 부사어를 함께 사용한다거나 ‘미안한데, 죄송하지만’ 등의 수식어를 함께 사용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언어 보편적인 특성을 지니는 관습적인 간접적 요청인데 공손성을 최대한 보여 줄 수 있다. 단언(asserted)보다 의문(questioned) 형태를 선택하는 것은 FTA를 고려하는 전략적인 사용으로 볼 수 있다(B&L 1987:135). (6다)는 성적을 알려 달라는 정보 요구 전에 예비 발화의 기능으로 의문문을 사용한 예이다. 예비 발화는 화자가 청자의 체면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을 때 이를 보상하기 위한 전략으로 실제 요청이나 부탁에 앞서 예비적으로 행하는 발화를 의미하며 이는 간접적인 특징이 있다. 그런데 앞서 제시되었던 관습적인 인사말 표현 역시 예비발화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특정 발화 기능을 위한 예비 발화라기보다 대화 시작을 알리는 표지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동일 범주에 포함하지 않았다.

- (7) 가. FB10: 이거 냄새 좀 많이 나는데 이거 어때요?
KB10: 이거 유분이 많아요

FB11: [그래요? - 확인

KB11: 유분이 많아요.

FB11: 이거 제가 한번 쓰는데 좀 괜찮은 거 같은데

나. FA18: 어 근데 그것은 대기업보다 더 힘들 텐데요. (휴지) 저
기 언니가 타고 싶은 버스 가는 게 아니에요? 설마

- 화제 전환

다. 우선 해 보는 게 어때요?(F32) - 권유(제안)

(7가)의 경우 KSL 고급 학습자(FB)가 향이 좋다고 생각하고 써 본 적이 있는 화장품에 대해 점원(KB)이 단점을 이야기하며 다른 화장품 구입을 권유하는 상황이다. 이때 점원(KB)의 소극적 체면을 고려하여 KSL 고급 학습자는 우선 확인 질문을 한 다음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상황이다. (7나)는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나서 갑자기 다른 화제로 전환하여 대화 주제를 환기시키는 기능으로 의문문을 실현한 것이다.¹⁶⁾ (7다)는 권유 기능인데 본고에서는 단 3회 출현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KSL 고급 학습자는 의문문 형식을 통해 다양한 화용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L2 화자의 문법 요소의 습득은 형태(form)와 상황 맥락에 맞는 의미(meaning)를 결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문법 형태와 상황적 맥락을 적절히 연결시켜 사용하는 양상에 따라 학습자 언어 단계를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문법 형태를 맥락 구분 없이 사용하는 초기 단계, 문법 요소를 서로 교체하여 사용하는 자유 변이 단계, 문법 요소를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체계적 변이 단계, 각 문법 요소들의 형태와 의미를 연결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범주적 사용 단계로 나눌 수 있다(Ellis, 1987:183). 본고에서 KSL 고급 학습자는 한 가지 문법적 형식을 다양한 화용적 기능과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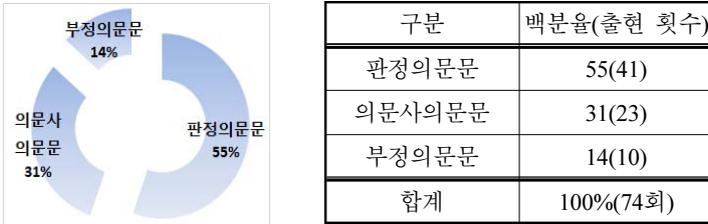
16) 이는 공손 전략 가운데 화제 전환 표지어 전략 사용으로도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담화 표지, 호칭어, 용인 가능한 화제 부각 표지 등도 포함된다.

하여 모국어 화자같이 활발하게 문장을 생성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의문문 형식을 주로 의견 표출과 요청의 기능과 연결시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최소한 체계적 변이 단계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¹⁷⁾

4.3. 질문 전략의 의문문 종류별 실현 양상

L2 학습자가 의문문의 언어적 형식과 상호작용에서의 체면 보상 기능의 상호 관계를 인식하여 사용하기까지는 공식적 학습 환경 이외의 비공식적 언어 환경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 KSL 고급 학습자 역시 성공적인 상호작용에서 상대방의 체면을 보상하는 강력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의문문 형식을 종류별로 사용했는데 그 결과가 <도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도표 3> 질문 전략의 의문문 종류별 실현 양상 1



17) KSL 학습자의 숙달도에 따른 질문 공손 전략 사용 양상을 분석한 예가 있다. 초급 학습자의 경우 요청 기능으로 의문문을 사용해 상대에게 공손성을 표현한 것이 단 8회 출현한 데 반해 고급 학습자의 경우에는 총 97회 출현하여 그 가운데 의견 표출이 47.4%(46회), 의심(비동의)이 4.1%(4회), 권유가 7.2%(7회), 확인이 9.3%(9회), 요청이 32%(31회)로 나타났다(엄진숙, 2014:124). 고급 학습자가 초급 학습자보다 질문 공손 전략을 다양한 기능으로 활발하게 사용하며 특히 의견 표출과 요청 기능으로 많이 실현하며, 초급의 경우 의문문 형식을 요청 기능으로 제한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참고로 엄진숙(2014)에서는 본고에서 후술되는 의문문의 종류별 실현 양상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KSL 고급 학습자들은 질문 전략을 통해 공손성을 실현하는 데 있어 판정의문문 55%, 의문사의문문 31%, 부정의문문 14%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KSL 고급 학습자들이 상대의 소극적 체면의 FTA 가능성을 줄이고자 하는 질문 공손 전략의 사용에서 ‘예/아니오’의 판정의문문 형식을 55%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정의문문의 의미구조는 의문사의문문보다 간단하고 화자의 정보를 노출시켜 상대가 응답을 선택하는 데 따르는 작업량을 줄여 줘 원활한 의사소통에 기여할 수 있고 공손하게 들릴 수 있다. 실제 KSL 고급 학습자 언어에서는 다음의 (8가)와 같이 판정의문문 형식을 사용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판정의문문이 화자의 가정을 표면화함으로써 상대의 응답 선택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이해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원활한 의사소통에 기여하는 것은 아니다(박종갑, 1984:178). 본고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화자가 상대의 체면을 고려하여 발화하는 의문문의 경우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음을 다시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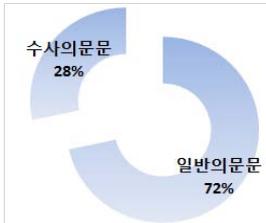
- (8) 가. 우리 오늘 시내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만나도 될까요?(F33)
 나.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언니가 돈이 안 받았어요... 어떻게 좋은 방법 있어요?(cry 이모티콘)(F41)
 다. 지금 왜 열심히 공부하고 나중에 왜 열심히 돈을 벌고..... 아름다운 사랑을 위해 아닌다?(F05)

(8가)는 화자가 상대에게 다른 곳에서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있고 (8나)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화자가 상대에게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물어 보고 있지만 전체 담화 맥락에서 ‘좋은 방법’이란 화자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 달라는 요청의 의도가 담겨 있다. 이 같이 사용된 74개의 문문은 상대의 소극적 체면을 의식하여 공손성을 실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8다)의 부정의문문과 같이 자신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주장하는 수사적 용법의 의문문이 28%(21회)로 나타났으며 일반의문문은 72%(53회)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도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도표 4> 질문 전략의 의문문 종류별 실현 양상 2



구분	백분율(출현 횟수)
일반의문문	72(53)
수사의문문	28(21)
합계	100%(74회)

위의 <도표 1>을 보면 의문문 형식의 관습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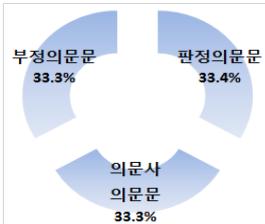
수사의문문이라고 해서 모두 상대에 대한 공손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이는 언어 사용의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고에서 분석한 21회의 수사적 용법의 의문문은 화자가 자신의 의견을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한 맥락에서 사용된 것으로 실제 학습자 언어의 예는 다음과 같다.

- (9) 가. 이제는 인터넷 수업 있어서 휴대폰 사용하지 않으면 정보 얻은 어떻게?(F07)
- 나. 과학이 빨리 발전하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동물 시험 말고 다른 약을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을 없을까요?(F05)
- 다. 그러면 이성 친구가 없는 사람들은 어렵게 사회생활을 하는 건가?(F27)
- 라. 그렇게 말하긴 한데 후회가 없는 인생을 어디 있을까?(F01)

KSL 고급 학습자들은 여러 담화 가운데 논설문에서 수사적의문문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를 얻을 수 없다’(9가), ‘동물 실험 말고 약을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9나), ‘이성 친구가 없는 사람들도 사회 생활에 문제가 없다’(9다), ‘후회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9라)와 같이 화자가 자신의 의견을 단언문이 아닌 의문문의 형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수사적 의문문의 형식은 화자의 의견을 나타낼 때 강조의 효과를 지니며 단언문보다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기능을 지닌다. 이와 같은 수사적 용법의 의문문 사용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판정의문문, 의문사의문문, 부정의문문이 7회씩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전체 질문 전략 사용 가운데 빈도가 높다고 할 수 없다. 진강려(2013)에서도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의문사 수사적 의문문의 기능에 대해 이해하더라도 실제 사용에서 빈도가 높지 않았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도표 5> 질문 전략의 수사적 의문문 종류별 실현 양상



구분	백분율(출현 횟수)
판정의문문	33.4(7)
의문사의문문	33.3(7)
부정의문문	33.3(7)
합계	100%(21회)

서희정 외(2011)에서는 드라마 대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무슨’-수사의문문의 기능을 ‘어떤 사건이나 사실에 대한 청자 또는 화자의 생각이 화자의 기대와 다름’으로 설정하여 ‘무슨 A(청자 생각)?’, ‘A-은/는 무슨 (A)?’, ‘무슨 B(화자 생각)?’ 등의 문법적 형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문장 구조는 대화자 관계에 따라 공손성이 실현되기도 하며 반대로 명시적으로 상대의 체면을 손상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적 의문문의 화용적 기능을 교수할 때 대화자 관계 및 상황 정보를 함께 제시해야 올바른 사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KSL 고

급 학습자가 사용한 21개의 모든 수사의문문은 간접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거나 상대 의견에 대한 반대 또는 의심 등을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KSL 고급 학습자가 사용하는 수사의문문의 형태는 의문사의문문뿐만 아니라 판정의문문과 부정의문문도 동일한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KSL 고급 학습자들이 화용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의문문의 여러 구조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기에 교수에 있어서도 다양한 종류의 의문문을 화용적 기능과 연결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이승연(2012)에서는 신문 사설과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논증적 글쓰기의 수사의문문 사용을 분석하였는데 수사의문문 교육과 관련하여 한국어 교사들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한국어 학습자들의 논설문 자료에 나타난 수사의문문의 실제 사용 양상을 분석하였다. 논설문에서의 구어 의문형의 사용을 오류로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급 학습자들을 위한 수사의문문 교육 내용을 제안한 바 있다. 즉 문법 형태의 화용적 기능 습득과 형태적 정확도가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준다. 실제로 본고의 분석에서도 위의 (9가) ‘정보 얻은 어떻게?’와 같이 형태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사용이 38.1%(8회)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어 교육에서 수사적 용법의 의문문 형태를 명시적으로 교수해야 하며 또한 구어 어미와 문어 어미를 구별해서 교수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도치의문문 형태도 구어 자유 대화 자료에서 2회 나타났는데 이는 발화의 뉘앙스와 억양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화자의 공손성 의도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10) 가. KA04: 나는, 집에 일단, 집에 쉬면서 자격증? 공부도 해야 할 것 같애

FA04: [무슨 공부를 하려고요? 그렇게? 언니가 이미 잘 하잖아요.]

나. FA08: 아아 근데 어찌죠? 언니 이제 4학년인데 곧 있으면 일 자리?

KA08: [어어 그래 그거 때문에 더 그래 취업, 아 취업해야 되는데

(10)의 KSL 고급 학습자(FA)가 한국인 화자(KA)에게 발화한 내용을 보면 (10가)는 상대를 칭찬하는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고 (10나)는 상대를 걱정하는 마음을 표현하려는 의도로 발화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민감한 화제일 수 있어 적절성의 격률에 위배되어 상대의 체면을 손상할 수 있으나 오디오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발화의 뉘앙스가 상대의 소극적 체면을 손상하지 않으려는 전략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특히 (10가)와 같은 수사어문문의 경우에 발화의 억양은 공부보다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며 상대를 칭찬하는 의도로 판단되는 적극적 공손성을 보여 주고 있는 예라 할 수 있다.

한편 의문문의 문장 종류와 관련하여 화용적 기능을 비교해 보면 KSL 고급 학습자는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때 수사어문문을 무려 87%나 사용하였다. 192개의 자료 가운데 논설문이 23편(12%)이고, 전체 21회의 수사어문문의 사용 중에서 논설문에서 52%(11회)가 출현하였다. 이는 논설문 담화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48%(10회)의 사용이 편지글, 문자 메시지 등의 담화에서 출현한 것은 KSL 고급 학습자들이 수사어문문을 의견 표출의 기능으로 다른 담화에서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때 일반어문문 형식이 아닌 수사적 용법의 의문문을 사용하는 경향이 큰 것은 KSL 고급 학습자들이 수사어문문의 질의 격률과 관련한 화용적 정보를 유효적으로 습득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수사어문문은 질문의 본래 기능인 답변 요구를 하지 않으며 함축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 사용할 수 있다는 화용적 정보를 알고 실제

사용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¹⁸⁾ 즉 KSL 고급 학습자는 의문문의 수사적 용법과 의견 표출 기능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양상을 명확히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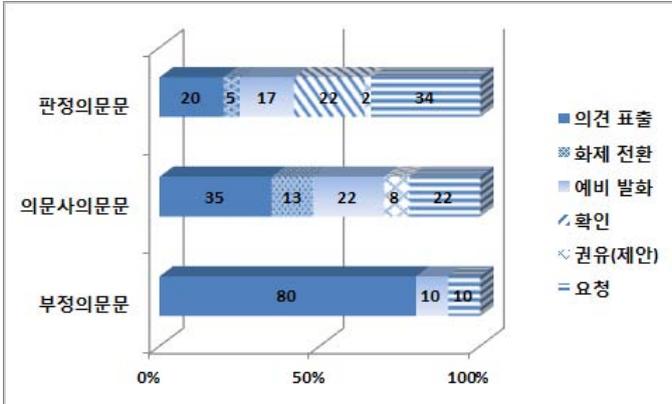
<도표 6> 질문 전략의 의견 표출 기능의 의문문 종류별 실현 양상



다음의 <도표 7>은 의문문의 종류별 화용적 기능 실현 양상을 분석한 것으로 판정의문문은 요청 기능을 수행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화자가 요청의 기능으로 발화할 경우 구체적인 요청 사항이 명확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수락과 거절의 대답이 가능한 판정의문문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 의문사의문문은 의견 표출 기능으로 가장 높게 사용했으며 그 다음으로 요청과 예비 발화 기능을 동일한 비율로 사용하였다. 화자와 상대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자신의 의견을 단정적으로 발화하기보다 상대의 의견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8) 수사적의문문은 일반의문문의 구조보다 유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KSL 학습자들이 유표적인 수사적의문문을 다른 의문문의 구조와 배타적으로 의견 표출 기능과 대응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도표 7> 질문 전략의 의문문의 종류별 공손성 실현 양상



부정의문문의 경우에도 의견을 표출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손과 완곡 표현의 화용적 기능으로 실현될 때 화자가 자신의 전제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지 못하거나 확신을 가진다고 해도 겸손하게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진강려(2011)에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담화완성과제를 실시한 바 있다.

영수가 주말에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러 가는데 어디가 좋을지 친구와 상의하고 있다. 친구는 에버랜드를 권하고 싶다. (문항 12)

영수: 여자 친구랑 주말에 데이트하는데 에버랜드 어때? 서울대 공원이 더 좋을까?

철수: 음, 다 괜찮지만, 에버랜드가 더 _____?

a. 좋죠.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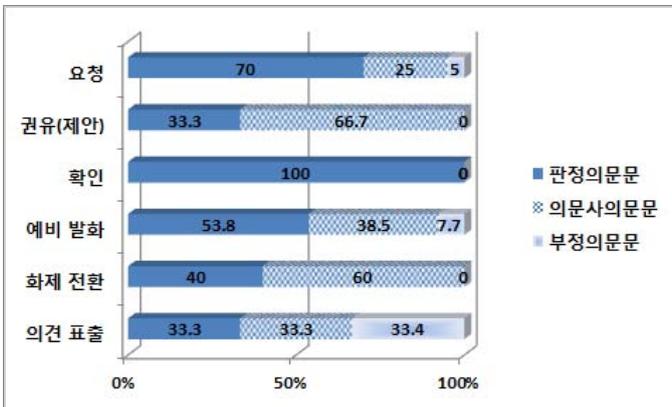
b. 좋을까?

c. 좋지 않을까?

19) 보기 문항 ‘a. 좋죠.’는 대화자 관계에서 아예 오답인 예이며 긍정의문문(부정의문문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사용된 용어로 일반의문문을 말함) ‘b. 좋을

위의 연구에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철수의 대답으로 c>a>b의 순으로 선택했다는 결과를 제시했는데 자신의 의견을 소극적으로 표출할 때 부정의문문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본고에서도 KSL 학습자 언어를 통해 의문문의 여러 화용적 기능 가운데 부정의문문을 이용해 자신의 의견을 가장 많이 표출하는 동일한 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²⁰⁾

<도표 8> 의문문의 화용적 기능별 공손성 실현 양상



위의 <도표 8>은 화용적 기능을 기준으로 어떠한 의문문 종류를 선호하여 사용했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이를 보면 KSL 고급 학습자는 판정의문문과 요청 기능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권유(제안)와 화제 전환 기능의 경우 의문사의문문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확인 기능은 판정의문문 유형만을 사용하였다. 예비 발화 기능 역

까?’ 역시 문장 호응이 자연스럽게 않은 예로서 이를 비교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20) 고급 학습자의 경우 부정의문문 사용에서 형태 통사적 오류보다 상황 맥락에 맞지 않는 사용이 더 많았다(李春艷, 2013).

시 판정의문문을 사용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서 분석한 바와 마찬가지로 의견 표출 기능은 여러 의문문 형식을 골고루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리하면 KSL 고급 학습자들은 상대 체면 손상을 보상하기 위한 언어적 형식으로 판정의문문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의견 표출 기능의 경우 수사의문문을 사용하는 경향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부정의문문은 주로 의견 표출 기능으로 사용되었으며 (도표 7) 요청 기능과 확인 기능을 수행할 경우에는 판정의문문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권유(제안) 기능과 화제 전환 기능의 경우 의문사의문문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²¹⁾(도표 8). 이처럼 KSL 고급 학습자들이 특정 화용적 기능과 의문문 형식을 대응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향을 분명히 살펴볼 수 있다.

5. 맺음말

지금까지 KSL 고급 학습자의 실제 언어 자료를 통해 상대의 소극적 체면의 잠재적 손상을 보상하기 위한 공손 전략으로서 의문문을 사용하는 양상을 전체적으로 살펴본 후 담화 기능별, 의문문의 종류별로 살펴 보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세 가지 연구 문제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KSL 고급 학습자는 의문문 형식을 단순히 정보 요구의 기능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관습적인 정형적 인사말 표현의 의문문은 물론이고 의문문을 간접언어행위로서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21) 그러나 이는 권유(제안) 3회, 화제 전환 5회의 빈도수를 고려했을 때 형식과 기능을 반드시 대응해 사용했다고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있었다. 공손성을 실현하기 위한 질문 전략 가운데 67%는 정형적 표현 이외의 비관습적인 사용으로 나타났다.

2. KSL 고급 학습자는 L2 화자로서 원활하고 성공적인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 상대의 소극적 체면을 보상하고자 의문문의 언어적 형식을 다양한 화용적 기능과 연결해 사용했는데 그 중에서도 의견 표출(32%)과 요청(27%)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SL 학습자가 의문문 형식을 정보 요구 기능 이외의 화용적 기능과 연결하여 사용하는 체계적 변이 단계 이상의 중간 언어 양상을 보여 주는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3. KSL 고급 학습자는 질문 전략을 관정의문문을 통해 가장 많이 실현하였으며, 의문문의 특정 종류와 화용적 기능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양상을 보여 주었다. 부정의문문과 수사문의문문은 의견 표출 기능, 관정의문문은 요청 기능과 확인 기능을 수행하는 경향이 분명히 나타났다. 그러나 의문사의문문의 경우 형식적 종류별 분석 결과에서는 의견 표출과 요청 기능이 높게 나타났으나 화용적 기능별 분석 결과에서는 권유(제안)와 화제 전환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KSL 고급 학습자가 의문사의문문을 질문 공손 전략으로 사용할 때 어느 한 가지 화용적 기능이 아니라 여러 기능과 골고루 대응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를 통해 KSL 고급 학습자들이 의문문에 대한 문법 지식을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필요한 체면 보상 욕구와 연결하여 질문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공손성을 실현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KSL 고급 학습자의 언어권 양상이 균등하지 못해 문화권별 공손성 실현 양상을 명확히 비교할 수 없었다는 점, 자유 대화 자료를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하여 구어 사용 양상을 더욱 면밀히 분석하지 못했다는 점이 한계로 남는다. 다만 L2 화자의 언어를 실제로 분석하여 언어 사용 경향을 파악하는 것은 언어 교수에 있어 시사하는 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

며, 부족하나마 본 연구가 한국어 교육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 문헌>

- 남기심·고영근(1985).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박종갑(1982). 의문문과 간접언어행위, <영남어문학> 9, 영남어문학회. 55쪽~76쪽.
- 박종갑(1984). 의문문의 화용론적 특성(1), <영남어문학> 11, 영남어문학회. 159쪽~180쪽.
- 서상규 외(2013). 『한국어 구어 말뭉치 연구-말뭉치 기반 국어 연구 총서 20』. 한국문화사.
- 서희정·홍윤기(2011). 한국어 교육에서 수사의문문의 교육 내용-‘무슨’-수사의문문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88, 221쪽~244쪽.
- 엄진숙(2014). 한국어 학습자의 공손성 실현 양상, 영남대학교 박사 논문.
- 이승연(2012).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수사의문문 교육 연구-논증적 글쓰기의 문어체 수사의문문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2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59쪽~287쪽.
- 진강려(2011).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부정 의문문 교육 연구-모어 화자와의 비교를 통하여, <국어교육연구> 28, 31쪽~60쪽.
- 진강려(2013).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의문문의 간접화행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李春艷(2013).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부정 의문문 교육 연구-중·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ardovi-Harlig, K.(1999). *Exploring the interlanguage of interlanguage pragmatics: a research agenda for acquisitional pragmatics*, *Language Learning* 49, 677-713.
- Beebe, L., Takahashi, T., & Uliss-Weltz, R.(1990). *Pragmatic Transfer in ESL refusals*. R. C. Scarcella, E. S. Anderson & S. D. Krashen(eds.), *Developing Communicative Competence in a Second Language*, 55~73, Newbury House.
- Ellis, R.(1987). (eds.)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 Context*, Prentice-Hall.
- Ide, S.(1989). *Formal forms and discernment: two neglected aspects of linguistic*

- politeness*, *Multilingua* 8(2/3), 223-248.
- Lakoff(1975). *Language and Woman's Place*, New York, Harper.
- Ochs, E.(1986). 'Introduction', B. B. Schieffelin and E. Ochs(eds.), *Language Socialization Across Cultures*, 1-13,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enelope Brown & Stephen C. Levinson(1987).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ianemann, M., M. Johnston & G. Brindley(1988). *Constructing an acquisition-based procedure for second language assessment*,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10, 217-243.
- Watts, Richard J.(2003). *Politeness*, Cambridge University Press.

엄진숙(Eom Jin-suk)

영남대학교 국제학부

712-749 경북 경산시 대동 대학로 280

전화번호: 053-810-7895 / 010-4147-8336

전자우편: th0206@ynu.ac.kr

접수일자: 2015년 4월 20일

심사(수정)일자: 2015년 6월 13일

게재확정: 2015년 6월 17일